

이순신장군의 혼이 담긴 노량의 바다

1. 목적 및 배경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역사·문화자원과 해상에 있는 갯벌을 활용한 체험을 통해 올바른 이해와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본다.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경관 해설
- 프로그램명 : 이순신장군의 혼이 담긴 노량의 바다
- 대 상 : 일반인
- 운영기간 : 신청에 따른 운영
- 운영형태 : 신청시 운영 60내외 / 회당
- 장 소 : 이락사 일원
- 주요내용 : 국립공원 소개, 이순신장군과 노량해전, 첨망대로 가는 오솔길 생태
- 소요예산 :
- 참가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국립공원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모집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이메일, 전화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홍보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5. 첨부

-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이순신 장군의 혼이 담긴 노량의 바다

활동장소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 일원
소요시간	60분 내외
참가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및 일반인
참가인원	10명/ 해설사1명
작성자	자연환경해설사 박재영

활동목표

-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온전히 보전함으로써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탐방환경을 마련하고 충무공 이순신의 충효정신과 리더쉽 등 올바른 역사 의식 전달

준비물

- 갯벌자료가 들어있는 태플릿PC, 이순신장군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사진 자료
- 필기도구, 메모장

유의사항

- 지정된 곳으로만 이동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한려해상국립공원 소개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주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락사, 참배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락사 참배도로 소개 • 이충무공유언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급신물언아사란? • 이락사, 대성운해 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락사, 대성운해 현판 소개 - 유허비와 비각 • 오솔길입구 남해노량과 한려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량의 유래 - 소나무 오솔길과 거북선이야기 - 첨망대 소개 및 나무퍼즐 거북선 만들기 	5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명장들의 찬문감상과 한시 낭송 • 마무리 인사 	5분

시나리오

인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문화 탐방프로그램 ‘이순신의 혼이 담긴 노량의 바다’를 진행 하기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나온 해설사 ○○○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이곳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탐방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시초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면적은 제주도의 5배이며, 1872년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이고 196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되고 우리나라의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에는 지리산을 포함해서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내장산, 북한산 등 17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과 같은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4개, 그리고 문화유적으로 이루어진 경주국립공원인 사적형 국립공원이 1개 있습니다.

이 곳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에 해상공원으로는 첫 번째로 전체 국립공원중에서는 2번째로 지정 되었으며, 그 범위가 넓어 6개의 지구를 3개 기관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자연·경관·역사·문화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주신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남해 금산과 서포 김만중 선생님의 유허지가 있는 상주·금산지구, 거북선과 충렬사가 있는 남해대교지구,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한 창선·삼천포대교가 있는 사천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영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이충무공 전승지가 있는 통영·한산지구 외도와 지심도가 있는 거제·해금강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동백림으로 유명한 여수오동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산에서 본 창선·삼천포대교)



(거제·해금강 지구의 대·소병대도)

이락사, 참배도로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이락사(사적232호) 안내판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라고 적혀 있네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텐데요 [관음포] 이것은 이곳의 옛 지명이구요, [전몰]전사의 높임말, [유허] 역사가 쓸쓸히 남아있는 곳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 돌아가신 역사가 쓸쓸히 남아있는 곳이란 뜻이랍니다. 이젠 글귀가 이해가 되시나요? 54세의 일기로 장렬히 전사한 곳이며 순국하신 후 처음 육지로 유해(유골)를 모신 곳입니다.



(이락사 안내판)

◎이락사

- 순조32년(1832) 제사를 지내는 단과비 비각을 세움 1965년 큰별이 바다에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대성운해’ ‘이락사’ 액자를 경내에 걸었다

바로 옆은 돌계단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잘 보세요 보통 계단하고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네~~ 계단을 세 군데로 구분하고 있죠 우리가 정자각이나 향교, 사당, 제실 등 위패나 신령을 모시는 곳에 참배를 할 때는 꼭 지켜야할 예법이 있는데요 ‘우입좌출’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해당하는 건물을 바라보며 반드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계단은 누가 지나가는 것일까요?

가운데 넓은 계단은 이순신장군의 영혼과 제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오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임금이나 영의정 이상의 관직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운데 계단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난 다음) 여기 돌로 길이 잘 정비되어 있죠? 여기는 1950년대 남해군민 7,000명이 헌금을 모아 만든 참배길입니다. 남해군민들의 애석한 마음을 담아 이순신장군을 추모하는 참배길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도로가 가운데는 볼록하고 양옆은 조금 내려앉은 모습이죠 혹시 이유를 아시는분 계실까요?

가운데 길은 이순신 장군이 걸어 다닌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을 생각하는 남다른 애정이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가운데 돌 계단)



(참배길)

이충무공 유언석비

이순신장군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실분이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 말을 하지마라] 라는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을 한자로 옮기면 “전방급 신물언아사” (戰方急 慎勿言我死)입니다.

이 말의 참의미는 물론 적에게도 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야겠지만 우리 수군에게 이순신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싸움에서 장수가 죽으면 이기고 있던 싸움도 전세가 역전되어 전투는 장수를 잃은 쪽의 패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였기 때문에 우리수군이 이순신장군의 죽음을 알게 된다면 전투력을 잃어 전쟁에서 패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라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유언비석은 1998년 12월 16일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 당시 남해에서 태어난 해군참모총장 류삼남씨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방급 신물언아사 비석)

이락사 대성운해 현판

사당 입구에 이락사라는 현판이 보이죠? 특이한 점이 보이나요? 네~~ 한자를 한글 포기형식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고 있죠. 남해 노량에 위치한 충렬사 입구 현판도 마찬가지로인데요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충렬사’와 ‘이락사’‘대성운해’를 내렸다고 합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전물유허’를 왜 이락사라는 현판으로 내리셨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의 ‘이락사’ 는 명칭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의미가 좋지 않으니 관음사로 고쳐 쓰자는 주장도 있지만 수백 년이 흘렀고 국가에서 정한 명칭이니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남해사람들이 이곳을 본래 지명인 '관음포'로 부르지 않고 굳이 '이락포'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충무공의 목숨이 이곳에서 떨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더욱 비장하게 느끼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먼저 눈이 띄는 저 현판 보이죠 누가 한번 읽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대성운해' 라고 쓰여 있죠 입구에 있는 이락사현판과 마찬가지로 한글처럼 적고 있습니다.



(현판 이락사와 대성운해)



(대성운해 현판과 사당)

왼쪽으로 비와 비문이 있으며 사당 주위를 감싸고 있는 소나무들이 이곳에서 오랜 세월 사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성운해' '큰 별이 바다에 잠기었다'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현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의 유래를 알기위해 1598년 음력 11월 18일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이순신장군은 배 위로 올라가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빌었다고 합니다. '이 원수들을 모조리 무찔러 멸망시킬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차수약제 사척무감 - 此讐若除 死則無憾)라고 말이죠 달빛도 없는 깜깜한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임진왜란 사상 가장 격렬한 전투,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왜적은 관음포가 남해도를 돌아나가는 해로로 착각해 포구 안으로 진입하고 날이 밝자 포구 안에 갇힌 것을 안 왜군은 죽기 살기로 탈출할 길을 찾았다. 처절한 전투는 다음날 정오경에 끝이 났고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말라고 외치면 독전(전투를 감독하고 격려함)하던 이순신 장군은 적탄에 맞아 장렬한 최후로 전사했다

이곳 사당은 이순신장군의 순국 후 사당을 짓고 비문을 세워 이순신 장군의 넋을 기리고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순간까지 나라를 먼저 생각하신 이순신장군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곳입니다.

잠시 5초간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묵념을 마치고)

이곳 이락사는 아산 현충사, 남해 충렬사, 통영 충렬사, 여수 충민사 등과 함께 충무공의 넋을 기린 여러 사당 중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해를 맨 처음 모신 곳으로 다른 사당과는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해 충렬사라고 가본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렇군요

남해 충렬사는 남해대교지구 밑 남해 노량에 있는데 그곳은 이순신장군이 3개월간 묵혔던 자리에 아직도 가묘가 남아 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충무공의 시신을 맨 처음 충렬사 자리에 100여일 안치하였다가 1599년 2월 11일 전라도에 위치한 고금도를 거쳐 외가동네인 아산 현충사 자리에 운구(시체를 넣은 관을 운반함)되어 안장(편안하게 장사지냄) 되었답니다.

이락사가 순국성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장군이 전사한지 234년이 지난 1832년 이순신 장군의 8대손인 이항권이 통제사로 부임하면서 유허비와 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신이 맨 처음 육지에 오른 곳이 바로 이곳 관음포인데, 그 당시 충무공을 기리는 유적으로는 여수의 좌수영대첩비, 해남 벽파진의 명량대첩비, 통영의 충렬사비, 순천의 충민사비, 그리고 남해의 충렬사비가 있었는데, 정작 충무공의 순국지인 관음포에는 기념비가 하나도 없어 충성을 다해 나라에 은혜를 갚은 충무공을 기리기 위해 홍문관 대제학 홍석주가 유허비 비문을 짓고 예문관 제학 이익희가 글을 써 유허비를 세웠습니다.

[참고자료]

◎ 홍문관 (국왕의 정책연구기관)

-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와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 대제학 (조선시대 예문관과 홍문관의 최고 책임자) - 장관급

- 정2품직. 전임직이 아니라 타관이 겸임하는 겸직이다. 때로 종2품관도 임명함. 관직은 들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두 관서의 대제학을 겸하는 것이 상례였다. 국가의 문한을 총괄하는 지위로 반드시 문과출신 중에서도 학문이 높은 사람을 임명했다.

때문에 대제학은 권위와 명망이 높았으며 문과출신 관료의 최고 영예로 간주되었다. 대제학이란 관직명은 고려 후기에 처음 등장했다. 고려시대에 문한을 총괄하는 지위는 예문춘추관의 대학사와 한림원의 최고 관원인 대학사였는데, 1362년(공민왕 11) 대학사를 대제학으로 고쳤다. 1314년(충숙왕 1)에는 보문관과 진현관에도 대제학을 두었다. 이후 대제학과 대학사의 명칭이 몇 번 반복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는 대학사로 했는데, 1401년(태종 1)에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예문관의 최고 책임자를 대제학으로 했다. 홍문관의 대제학은 1420년 홍문관의 전신인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최고관으로 대제학을 둔 것이 시초이다.

이 직제는 성종 때 <경국대전>에 수록되었으며 한말의 <대전회통>까지 가감없이 이어졌다.

◎ 예문관 (국왕 보좌기관)

- 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 제학 (차관급)

- 조선시대 홍문관·예문관·집현전·규장각 등에 두었던 종2품직.

규장각에는 정1품·종1품직도 임명할 수 있었으며, 정1품직을 임명했을 때는 대제학이라고 했다. 홍문관과 예문관에 각각 1명, 집현전과 규장각에 각각 2명씩 두었다.

홍문관의 제학은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중국 송나라의 비서각 직제에 따라 정2품 대제학과 함께 종2품직으로 두었다. 예문관의

제학은 1401년(태종 1) 7월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어지면서 정2품 대학사 2명을 대제학과 제학으로 고쳐 두었다. 제학은 모두 전임관이 아닌 타관이 겸직하게 했다. 명예로운 관직으로 이조의 추천과 현직 대제학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었다.

뒤에 설치된 규장각의 제학은 각신이라고도 했다. 왕의 신임이 높은 인물이 주로 뽑혔고, 그 권한도 매우 컸다.

잠시 비각을 올려다보세요 비각을 보면 처마아래 봉황이 보이죠

봉황의 집은 어디일까요? 봉황은 주로 대나무 숲에 산다고 해요 그래서 봉황이 있으면 주위에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한 번 둘러보세요 대나무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대나무꽃은 60년~100년 만에 한번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대나무꽃이 봉황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성시 되는 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참고자료]

대나무가 꽃이 피는 원인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기설로 60년이나 100년만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꽃을 피운다는 설,영양설로 영양분의 결핍이 개화의 원인이 된다는 설, 유인설로 병충의 피해가 직접 개화의 원인이 된다는 설, 화학성분의 변화설로 식물고유의 생리작용에 의해 꽃이 핀다는 설, 기후설로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개화의 원인이 된다는 설,태양의 흑점설로 태양의 흑점이 증가하면 개화한다는 설,계통설로 대나무의 개화가 잘되는 것과 잘되지 않는 계통이 있다는 설등이 있다.

대나무꽃이 피면 어떤 이는 대밭의 전체가 고사하기 때문에 불길한 징조가 된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팬더곰의 서식시대에서 대꽃이 피면 대나무를 주식으로 하는 팬더곰이 같이 아사하기 때문에 그 대책에 골머리를 앓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대나무의 열매의 결실로 들쥐들이 엄청나게 번식하기 때문에 그 퇴치에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에 전국의 대밭

에서 꽃이 개화되었다는 이야기도 그런 종류인 썸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봉황에 관한 장자의 고사 때문에 대꽃이 피면 굉장한 길조로도 여기는 모양이다. 대꽃이 자주 피기 때문에 봉황이 온다고 하여 지명도 봉황과 관련하여 붙여진 곳이 전국 곳곳에 있기도 한 모양이다.

대나무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 - 대나무의 열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다고 한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문헌인 <증보문헌비고>에는 조선 태종 강원도 강릉 대령산 대나무가 열매를 맺어 모양이 보리와 같고 찰기가 있으며 그 맛은 수수와 같아 동네 사람들이 식량과 술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지봉유설>에는 지리산에는 대나무 열매가 많이 열려서 그 지방 사람들이 밥을 지어먹었고, 울릉도에서는 비축식량이 두절되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마침 대나무가 결실을 맺어 대나무열매와 산마늘로 연명하여 기아를 면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꽃의 개화나 그 결실이 반드시 흉조로 인식되지는 않은 듯하다.



(대나무꽃의 모습)

유허비를 보면 홍문관 대제학 홍석주가 글을 짓고 제학 이익희가 글을 썼습니다.

(유명수군도독조선국삼도통제사증의정부영의정시충무이공순신유허비)

유명이란 말은 명나라에 속한 조선국 또는 명나라의 조선국 등 논란이 많지만 단순히 명나라 시대의 조선국이라고 표현 하는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에서도 유(有)는 위대하다, 크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대명(大明)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명나라를 높이하고자 한 표현이지, 조선이 명의 속국임을 부각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명의 수군도독으로 조선의 삼도수군통제사이며, 의정부 영의정으로 관직을 추증하고 충무 시호를 받은 이순신의 유허비라는 뜻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비와 한글 번역비는 비각 안에 있는 비를 그대로 옮겨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번 읽어 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태양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

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노량해전에 명나라 장수로 크게 기여한 진린장군 아시나요? 진린장군이 조선에 오게 된 배경은 황제가 구원병을 보내자 황제의 명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온 것이지 조선을 진심으로 도와 일본을 무찌르고자 한 마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순신 장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순신장군을 진심으로 돕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순국 후 진린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보고문서)에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천위지지재요, 보천옥일지공이라’ 이순신 장군을 두고 한 말인데요, 그 뜻은 ‘하늘도 놀랄만한 재주가 있고 하늘을 깰고 해를 목욕시킬 만큼의 큰 공(나라를 바로 세운 공)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선과 이순신장군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던 진린장군도 이순신 장군의 성품에 반해 극찬을 한거죠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이셨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솔길을 따라 첨망대로 이동하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비석)

오솔길 입구 남해노량과 한려해상

남해대교가 가로지른 노량해협의 거센 물살은 남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산 증인이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노량 앞바다는 여수를 떠나 통영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수로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해상교통의 요지인데 그보다는 충무공 이순신이 전사한 노량해전의 현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정유재란)이 시작된 곳으로, 또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무수한 유배객들이 자신의 적소(귀양지)로 건너오기 위해 나룻배를 탔던 한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 남해섬으로 들어가려면 남해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지금은 창선삼천포대교(2003년), 노량대교(2018년)가 있어 남해로 오는 다리가 3개이다) 1973년 개통된 남해대교는 육지인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와 남해섬 최북한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두 노량마을을 잇고 있는 길이 660m의 다리로 남해섬의 관문이다.

남해 노량은 경상남도 남해도와 하동사이에 있는 나루터로 남해대교와 총렬사, 거북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총렬사는 노량의 아름다운 바다모습과 붉은색으로 단장되어 허공에 걸려 있는 남해대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며

이곳은 매년 봄 벚꽃과 유채가 만발하여 한려수도의 봄 경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된 노량대교)

노량(露梁)은 약 400여년 전부터 마을을 이룬 곳으로 지명유래는 ‘옛날 남해도로 귀양을 온 선비가 이곳에 이르러 노량앞바다의 물결이 마치 이슬방울이 모여 교량을 이룬 것 같다.’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양을 떠나 유배당한 선비들은 비록 이슬 다리일망정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귀향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앞바다를 한걸음에 건너고 싶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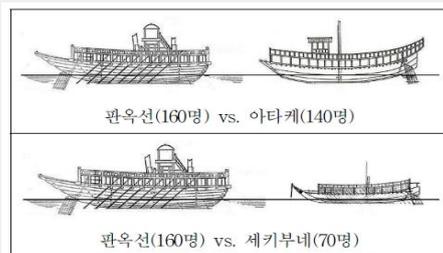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이순신장군의 숨소리를 느낄 수 없는 현대인에겐 해마다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의 순국일에 열리는 승첩제(지역축제)만이 잊었던 그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노량 앞 바다에 띄워 놓은 거북선을 직접 타보며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는 것도 기억에 남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북선은 한국해군이 충무공이순신의 나라사랑하는 얼을 길이 계승하기 위하여 이충무공전서와 옛 선박 관련 기록들을 참고하고 노산 이은상 등 학계전문가 16명의 고증을 받아 1980년 1월 31일에 복원 한 것입니다.

(오솔길을 걸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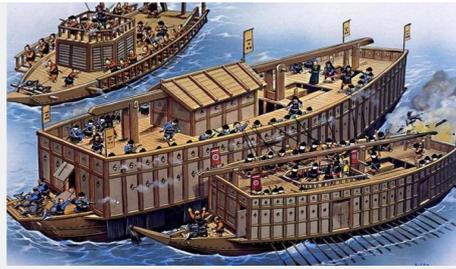
오솔길을 걷다 보니 푸른나무가 참 많죠 낙엽송 보다는 늘 푸른 나무위주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순신장군과 거북선은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거북선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교보재활용) - 거북선, 판옥선, 안택선, 학익진, 중요해전도 사진 자료 등 우리나라 전투선인 판옥선과 돌격선인 거북선은 단단한 소나무와 참나무로 만들어진 반면, 일본의 안택선(아타케부네-대장선), 세키부네(전투선) 등은 참나무에 비해 덜 단단한 삼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가 겹치는 이음새 부분에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소나무를 사용했지만 왜선은 철못을 사용하여 내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선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주력 공격 무기인 대포 같은 무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판옥선과 안택선·세키부네 비교)



(안택선과 세키부네)



(판옥선)

그리고 배의 구조는 밑면이 U자로 이루어져 있어 평평하여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속력은 느립니다. 안택선은 밑면이 V자여서 방향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속력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의 특징으로 봐서 일본은 백병전을 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활과 대포를 활용한 장거리 전투를 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북선은 돌격형 함선으로 적의 선단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접근전을 펼치며 함포를 발사하며,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심이 박힌 거북 모양의 동갑판으로 갑판을 가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철로 두르면 배가 무거워지고 많은 양의 철을 필요로 함으로 주로 창이나 칼 등으로 갑판정상부를 만들고 보이지 않게 물을 적신 거적(짚으로 두툼하게 자리처럼 만든 물건)을 덮어 갑판의 무기를 숨기고 화재에 대해 대비 했다고 하는 설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거북선)



(판옥선)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갑판 위에 있는 '판옥'이라는 장대가 있어 판옥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노를 젓는 1층과 함포를 발사하는 2층으로 구성되어 전투에 효율적입니다.

학익진 전법은 한산도 대첩에 사용한 전법으로 말 그대로 학이 날개를 펴서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진입니다. 육상에서의 전법인데 실제로 육군 지휘까지 한 이순신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첨망대로 가는길)

(첨망대에 도착후)

오솔길을 걸어오신다고 힘드셨죠?

자 이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편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을 보통 전망대 또는 망대라고 부르는데 왜 첨망대라고 부르는 이유를 말까요? 그 이유는 관음포 앞바다를 그냥 내려다보지 말고 우러러 가슴속 깊이 새겨 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첨망대는 1991년에 2층 누각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이곳의 예전 지명은 '이내기끝'이라고 합니다.

첨망대에서 바라보면 노량해전의 전장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럼 노량해전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이라는 전과, 무고한 투서로 인한 고난과 백의종군, 원군의 대패와 명량의 설욕 조선과 일본의 7년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노량대첩 그리고 이순신장군의 장렬한 전사. 한편의 영화 같았던 장군의 삶이 지금도 쪽빛 바다에 아른거리는 듯합니다.

관음포는 마치 항아리와 복주머니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적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는 돌아 나갈 수 없는 통발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첨망대)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지형과 물때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밖에 없는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신화가 아니다'라는 해군사관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쟁을 이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병법과 우리수군의 노력, 나대용과 거북선, 어영담과 물 때 등 모든 조건이 우리 조선을 구하게 한 것이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에 명나라를 정벌하려는 야심으로 조선을 침략한 7년 전쟁 중 이곳에서의 노량해전은 최후 최대 격전의 하나였어요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자 '조선을 침략한 병사는 모두 철군하라'는 유언에 따라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군의 남해의 소호군 사천의 시마즈군은 창선도에서 모여 일본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순천의 고니시군은 퇴로가 차단되어 명나라 진린장군에게 뇌물을 바치고 퇴로를 열어줄 것을 간절히 원했으나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1월 18일 창선도에 모여 있던 일본군은 거제도와 부산에 있던 왜군과 합세하여 500여척으로 순천 고니시군을 구하기 위해 노량해협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11월 18일 밤 12시경 이충무공은 원수기 밑에서 청수로 손을 씻고 백단향

을 피운 다음 축전 기도하기를 ‘이 나라를 위해 적을 섬멸할 수 있다 하오면 죽어도 또한 여한이 없겠나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큰 별 하나가 떨어지니 모여 있던 군사와 장수들은 이상한 감회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11월 19일 새벽 2시쯤 전투가 시작되어 왜선 200여척을 격파하자 왜적은 패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50여척은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순신장군은 도망하는 왜적들을 보며 ‘한 놈도 살려 보내선 안된다’ 라고 하시며 왜적을 쫓으시다가 왼쪽 가슴에 적의 유탄을 맞아 순국하시게 됩니다.

지난해 순국해역 위치를 조사했는데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관음포 해안 이내기끝과 어서리끝 사이의 해상으로 당시 전투상황과 조수, 지형지물, 충무공의 전략-전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문헌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순신장군의 순국 위치)

조사단은 노량해전에 관한 신빙성 있고 고증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문헌 중 당시의 전시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난중잡록과 은봉전사, 상촌집 등의 기록을 통해 이번 순국해역을 찾아냈습니다. 어서리와 이내기끝 사이 저 쪽이 순국지점입니다. (손으로 위치표시) 그 동안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를 찾는 탐방객들이 관음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그 어디에선가 왜적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거뒀을 것이라는 추측만 해 왔지만 이번 순국해역 부표 설치로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이충무공의 호국 혼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998년 12월 16일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추모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이충무공의 마지막 유언을 새긴 유언비를 입구에 웅대하게 세워 공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끼게 해줍니다.

임진왜란이 몇 년 동안의 전쟁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긴 전쟁으로 부모님의 죽음 등 약해진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달 밝은 밤에로 시작하는 ‘한산섬의 노래’ (한산도가)를 지어 읊으면서 해전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고독함을 달랬다고 합니다.

조정의 지원도 없이 명량해전 이후 빠른 속도로 수군의 전력을 회복하고 명나라 수군도록 진린장군과 함께 돌아가려고 남해일대로 총출동한 일본군과 조선수군이 싸운 마지막전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과정에서도 ‘난중일기’를 비롯하여 어머님께 보내는 눈

물겨운 편지와 ‘한산섬의 노래’ 등 여러 편의 시와 시조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난중일기’가 그날의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7년을 한결같이 조선의 바다를 지키며 전 생애는 충과 효로 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무토막퍼즐을 이용해 거북선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함께 만들어 볼까요?



(거북선 모형 만들기)

(다 만든다음)

다들 너무 잘 만드셨네요 이곳이 한산도의 수루는 아니지만 관음포 앞 바다를 내려다보며 이순신장군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한산도가를 걸어볼까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꿰나니
(일성호가 - 한곡조의 피리소리)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순신장군이 어떤 장군이였는지 당신 조선을 침략한 왜장 중 한 사람인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순신이며 가장 흠모하고 숭상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도 바도 이순신이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 진린장군도 경천위지재요, 보천옥일지공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놀랄만한 재주가 있으며 나라와 임금에게 바친 큰 공적이 있다) - 유성룡의 징비록에 내용이 나와 있음

마지막으로 유명한 찬문 중에서 일본 동향평팔랑 제독은 나를 넬슨(영국)제독에 비하는 것은 가하나 이순신 장군에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세력 확장에만 급급했던 지배 세력들과 혹시라도 왕권에 걸림돌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이순신을 미워했던 선조 임금,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한 이 충무공의 충절과 백성을 사랑하였던 마음과 행동은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태양 같은 존재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저의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돌아본 길들이 의미있는 길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